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용규

전화 042-470-4039 / 팩스 042-470-4240

보도자료  
2022. 6. 13.(월)

주무부서 공판부장 허성환

전화 042-470-4313

제 목

## 위증 집중 단속으로 '법정 피노키오' 엄단

"법정에서 거짓말하면 큰 코 다칩니다!"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전지방검찰청(검사장 노정환)은 '21. 12.경부터 '22. 5.경까지 6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 적발하여, 그 중 6명을 불구속 구공판 하는 등 전원 기소하였음
- 대전지방검찰청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위증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

### I 단속 배경

-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,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
-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큰 죄의식 없이 개인적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대전지검은 위증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

## II

### 단속 결과

- '22. 12. ~ '22. 5. 6개월 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0명을 적발하여, 그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원 기소하였음
-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,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킨 사건은 특히 엄중하게 처리하였음

## III

### 대표적 사례

#### ① 지인을 위해 본 것도 '안 봤다'고 거짓말하여 2차 가해한 사례

- A는,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, "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나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."라고 거짓말  
⇒ A가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이후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강간 피해를 상담하는 등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
- B와 C는, 자신과 일행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, "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.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."라고 거짓말  
⇒ B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사실, C가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

## ② 동네 선배를 위해 혼자 범행을 뒤집어 쓰겠다고 거짓말 한 사례

- D는, 피고인과 같이 소위 '포주'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, "나 혼자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."라고 거짓말

⇒ D가 피고인과 같이 여성들을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

## ③ 남편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짓말 한 사례

- E는,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후 귀가한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, "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. 내가 술상을 차려 줬다."라고 거짓말

⇒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귀가를 알고 있었고, 집에서도 술상을 차려 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어 위증으로 수사한 후 약식명령(벌금) 청구

## ④ 직장 상사를 위해 자신의 범행이라고 거짓말 한 사례

- F는, 피고인이 피해자의 땅에 설치된 철조망을 몰래 철거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, "내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시켰고, 피고인은 관계 없다."라고 거짓말

⇒ F가 굴삭기 기사에게 철조망 철거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내 위증으로 수사한 후 약식명령(벌금) 청구

## IV 향후 계획

- 대전지검은 '검수완박'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사법환경에서도 "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."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☑